상번제와 두 가지 주의 기도

(출30:1~38)

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2.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3.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를지며
4. 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꿸 곳이며
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8.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10.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상번제와 두 가지 주의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상번제와 두 가지 주의 기도'

우리가 십자가로 상번제를 드리되 반드시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번제의 본래 취지와 의미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번제가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두 가지 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6장, 누가복음11장에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기도입니다. 상번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되고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상번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아침에는 신약의 주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대로 주의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침에는 구약의 주의 기도를 저녁에는 신약의 주의 기도로 바

꾸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한 것은 이제까지 중요한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는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바깥쪽에는 출입구가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나중에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고, 만나가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서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는 상태로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지게 되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는 떡 상이 있고, 일곱 개의 촛대가 달려있는 등대가 있는데 오늘은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을 두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성소의 증거판이 들어 있는 법궤와 속죄소의 이야기를 하셨고, 성소의 등대와 진설병 떡 상 이야기를 하실 때 같이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사명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야 분향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향, 즉 향을 피워드린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특히 계8:3절에도 보면 선민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그 때와 똑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인데 기도를 말합니다. 번제와 붙어있는 것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번제단은 회막 바깥쪽의 뜰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회막 안쪽의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붙어있습니다. 거리가 있지만 그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취지와 의미가 내 것이 되고, 선민 각자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말했던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와 속죄소와 떡 상과 등대 이 모든 것이 함축하고 있고, 또 번제단에서 소제와 전제를 곁들여서 드리는 번제의 모든 의미와 취지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종합예술로 영적인 종합예술, 신앙의 종합예술이 기도입니다. 마치 영화가 음향과 색채와 모든 것이 다 가미된 종합예술인 것처럼 이 기도가 이제까지의 모든 성막의 기구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번제와 제사장의 신분이 나타내는 모든 의미를 다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좋은 은혜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도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기에서 ‘주의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번제단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으면 기도가 불가능한 이유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번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예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므로 어느 벽을

보고 기도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었고,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분향단에 뿔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대 속죄일에 속죄를 해야 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끌어다 붙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놋으로 만든 큰 그릇인 "물두멍"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유"로 모든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분향단에서 피울 "향의 제작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구와 필요한 사용품들은 곧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그 상번제를 기억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상번제에서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전과 물두멍과 관유와 향단에서 피울 향이 그것을 뜻합니다.

먼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속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속전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속해주신 그 속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생명의 속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생명의 속전이 됩니다.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속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속전입니다. 은 반 세겔이면 11.4g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동전 하나 정도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마6: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번제에서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드려야할 기도나 마음가짐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더라도 마음이 항상 성전에 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되살리는 것입니다. 본문 30: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는데, 은 반 세겔로 질병에 걸리고 말고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질병'이라는 말은 '네게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친다, 때린다.'로 '때려서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은 반 세겔을 안 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계수 속에 들어가는 선민은 마음이 이 회막 안에 와 있지 않고 세상의 사업장, 직장, 애인, 승진, 취미생활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선민 됨에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 반 세겔을 내면 그것을 녹여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낸 은 반 세겔도 거기에 기여되고 있음을 알아서, 내 마음도 그 회막에 같이 와 있는 것으로 이 은 반 세겔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차등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반 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보물이 회막에 가 있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주의 기도와 통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상번제의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 사방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 잘 해보겠다고, 건강해 보겠다고,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온 세상에 다 가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셨으니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만 하나님아버지가 내려오신다는 말씀과 통하면서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시27: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머물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세상에 붙잡혀 있으므로 거기서 풀려나려고 세상에 묶인 내가 타 죽는다는 뜻에서 번제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 곁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으로 번제의 의미가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으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10년 뒤의 성공, 5년 뒤의 성공, 내 자식의 성공,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84:10절의 다윗의 노래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가 내용이 되어야 하고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번제의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단계의 마음은 '물두멍'입니다.
'씻으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아들들이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몸을 씻으면서 아론과 아들들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집에서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데 신발 사줄 돈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 갖는 생각이 마음의 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때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고, 신약에서 세례 받으므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이 묶여있습니다. 이게 때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더러움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내 목숨이 더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소중하게 여기면 내 마음의 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다.'라는 말을 '미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하시고 '씻으라.'는 말로 바로 물두멍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속전에 대한 이야기는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늘에 내 마음이 가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드러내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통하는 것으로 내 마음 속에는 하늘에 계신 존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씻는다고 표현합니다. 처자나 부모 형제나 내 목숨까지도 내 마음에 이름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번제단에서 죽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 이름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고난은 지금까지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으로 죗값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기도가 향기로운 기름인 '관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건 마치 손가락에 침 발라서 점찍으면

서 “내 것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상번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기도의 실천적 의미는 내 가족도 하나님 것이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 연관된 분량만큼 하나님 것이 됩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 것이 되려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영역만큼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의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여놓았던 것들을 미워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으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미워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되면서, 나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미워하고 떨쳐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내 통치 아래에 있었고, 내가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의 힘도 동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가 드려지는 분향단이 속죄되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떨쳐내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도가 “향”입니다.
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29장 41절에서 상번제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향기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는 냄새이고, 하나님께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냄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노래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머물고 싶어서 땅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고,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 내가 번제를 통해서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냄새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우며 자식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쉼이 있고 평강이 있으려면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자식에 의해 성취될 때에 내가 쉬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자식이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다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식 놈 때문에 마음이 새까맣게 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관유를 발라서 성별되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냄새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만 이루어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신 것입니

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용할 양식과 사람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과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용서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관계는 삶에서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속전의 기도, 물두멍의 기도, 관유의 기도, 향의 기도를 보았는데 이 기도는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들이 아침저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기도문 아래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은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생길 때에 얻을 수 있는 만족의 크기만큼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가짐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면 그것을 물두멍에서 씻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만큼 하나님이 더 들어오셔서 기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억짜리 좋은 차를 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차가 없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그 만큼 더 친해짐으로서 내 마음이 기쁘면 좋겠다고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길 때에는 뭔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만큼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으로 채우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번제의 기도가 완성되면서 상번제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상번제가 내 것이 되려면 정기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 정기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신약의 주의 기도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속전과 물두멍과 관유와 향으로 표현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번제의 의미가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위해 만족하고 싶고 기뻐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으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질 만큼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사는 것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선민으로서 온전한 상번제로 약속된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과 구약을 통해 증거 되고 있는 주의 기도로 상번제의 의미를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